

■ 세계의 아름다운 축제 | 이스라엘 '초막절과 껏삭 축제'

이스라엘 '초막절과 껏삭 축제'

글·사진 허 용 선 (여행 칼럼니스트)



○ 유대인이 즐겨찾는 통곡의 벽



▶ 팻삭 축제날 통곡의 벽에모인 유대인들



▶ 축제날이면 많은 유대인이 모여 서로의 우의를 돈독히한다

기나긴 유대인들의 역사는 슬한 고난과 박해 그리고 저항으로 점철돼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애절한 사연을 축제로 승화시켜 희망찬 앞날을 다짐하는데, 이 점이 크고 작은 많은 유대인들의 축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골벽적인 다른 나라 축제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3,0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지닌 고도(古都)이며,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의 성지(聖地)로 해마다 수많은 순례객이 이곳을 찾는다. 필자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나 이스라엘을 방문한 덕에 신비로운 문화와 자연을 보고 느끼며 깊은 감흥을 받았는데, 축제 역시 유대인 특유의 흥미로운 면이 많은 행사였다.

이스라엘에 도착해 가장 쉽게 접하는 유대인들의 행사는 '안식일'이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쉬는 기간 중 모든 유대인 상점, 공공기관, 대중교통수단은 일제히 휴업 상태에 들어간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휴일로 지정해 집에서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평소 신성시하는 통곡의 벽이나 시나고그(유대인 교회)를 찾는다.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쑥홀'이라 불리는 성대한 축제로 구약의 일곱째 달 15일부터 8일간 뜨겁게 달아오른다. 일종의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띤 이스라엘 전통 축제로 각 가정마다 풀이나 옥상에 나뭇가지 따위를 엮어 초막을 짓는 특이한 광경을 구경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건한 의식을 갖는 것은 물론 출애굽기를 읽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는 과거 노예로 속박당한 이집트에서 모세의 인도 아래 탈출할 때의 고통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위함이다.

축제 기간 중 통곡의 벽 앞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

올리브 나뭇가지를 흔들며 경건한 기도를 드린다. 한편 유대인들의 교회인 '시나고그'에서는 '전도서'를 낭독하며, 실로암 연못에서 매일 물을 길어 제단에 부는 오랜 풍습도 아직까지 지켜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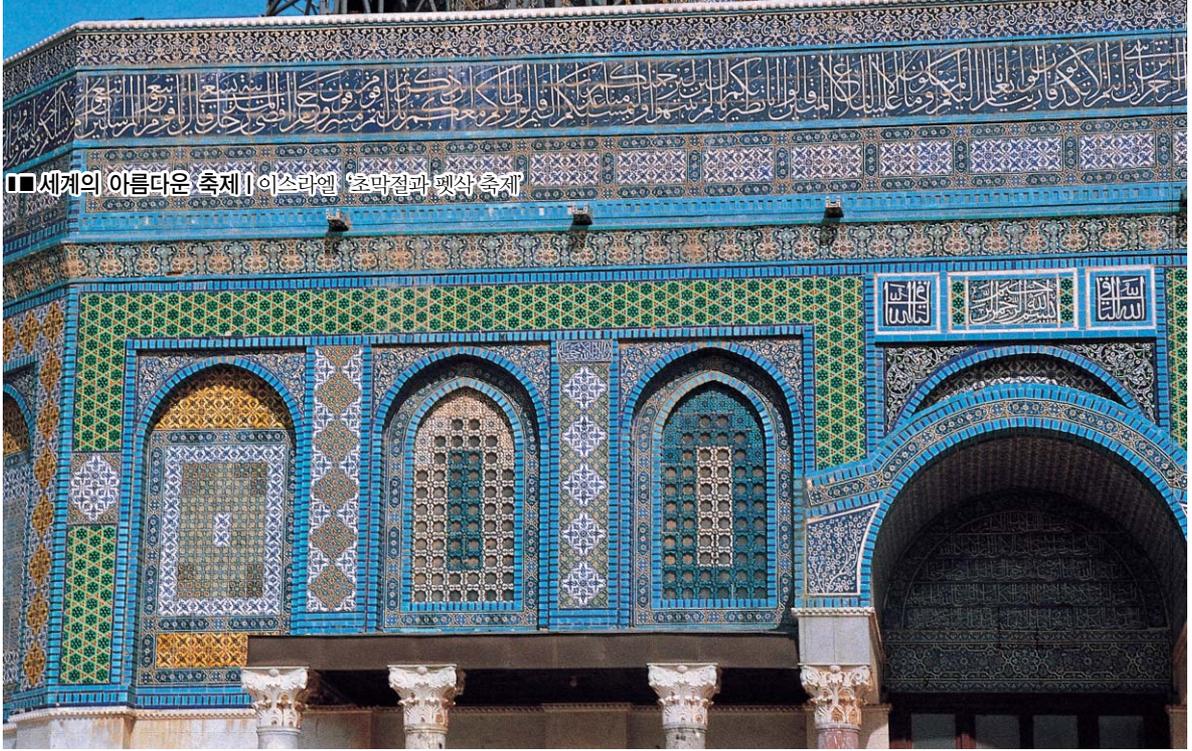
정월 초에 갖는 유대인의 축제로는 '로시 하사나'가 있다. 지난해 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며 새해 계획을 구상하는 기간이다. 특이한 것은 음력을 사용하는 유대인에게 정월은 우리와 같이 1월이 아니고 9월이라는 점이다.

'무교병 축제'라고도 불리는 '팻삭'은 4월의 열네 번째 되는 날을 기리는 축제이다. 이날부터 8일 동안 연일 성대한 축제가 벌어지며 첫날과 마지막 날은 공휴일로 지정된다. 팻삭 축제 기간 중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와 연회를 즐긴다. 또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들끼리도 이날만은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이날 먹는 음식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으로 '마썬트(무교병)'가 있다. 누룩 없이 밀가루만으로 반죽해 구운 빵으로, 고대 이집트의 학정으로부터 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탈출할 때 이집트 군대에게 쫓겨 시간이 없자 발효시키지 않고 밀가루 반죽만으로 그대로 구워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음식이다. 작년 팻삭 축제 때 이스라엘을 방문해 말로만 들던 무교병을 먹어보니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인지 빵이 얇으면서 바삭바삭했다.

원래 '팻삭'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고자 이집트인의 첫 아들을 죽일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의 집은 그대로 지나쳤다는 말(Passover)에 어원을 두고 있다. 떠들썩한 다른 나라의 축제와는 달리 팻

세계의 아름다운 축제 | 이스라엘 '호막절과 팻삭 축제'



아름다운 색채로 장식된 건물의 외벽



누룩없이 밀가루만으로 반죽해 만든 무교병



매혹적인 춤을 추는 유대인 여성

삭 축제는 조용하게 치러진다. 가족끼리 모여 애절한 사연이 깃들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축제가 지나는 의미를 곱씹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고난과 영광의 역사를 들려주면서 자유의 가치와 본질을 깨닫게 하는 기회로 삼는다.

팻삭 축제 때에는 식탁 위 풍경 역시 무척 흥미롭다. 이집트에서 겪은 쓰라린 체험을 상징하는 뼈째 구운 양고기, 삶은 계란, 쓴 나물, 네덜란드 젤리의 일종인 카파스, 무교병, 포도주 등이 식탁에 오른다. 삶은 계란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뜻하고, 쓴 나물은 이집트 유페를, 양의 뼈는 희생을 상징한다.

팻삭은 헤어져 있던 친인척들이 모여 만남의 시간을 갖는 가장 가족적인 축제일로, 가족 구성원들은 팻삭 식사와 관련된 책자를 몸에 지니고 있다. 이날 사람들은 미사

를 드리며 노래와 기도로 경건하게 식사를 마친다. 이스라엘인들만큼 오랫동안 나라 없는 설움을 절감한 민족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이스라엘인들은 해마다 팻삭 축제를 통해 쓰라렸던 과거를 되새기며 풍요한 미래를 기원한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등으로 성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유럽·아시아·아프리카 세 대륙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 기나긴 세월 동안 숏한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던 쓰라린 역사를 안고 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과거의 상처를 잊고 특유의 근성으로 세계의 정치, 경제, 언론, 군사 등 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겪은 일들을 교훈삼아 축제로 승화시키고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노력하는 진취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